

기고

이 춘 봉 진도군 부군수



투자유치로 앞당긴 500만 관광시대 珍島

보배섬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1년 농사지어 3년 동안 배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풍족한 고장이다.

풍요로운 고장답게 주민들의 품성 또한 착하고 타고난 예술DNA가 변변히 이어져 마을과 섬 곳곳을 가봐도 흥겨운 민속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전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살기 좋고 풍족한 곳에도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변화의 큰 바람이 일고 있다. 진도사람들만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산들바람이 아닌 광풍에 가까운 폭풍우 같은 바람이다. 그 한복판에 투자유치를 통해 7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난 7월 19일 개관한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있다.

개관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솔비치 진도는 지금까지의 진도군민의 삶과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은 섬 관광 시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진도군도 45개의 유인도와 200여개의 그림 같은 무인도 등 240여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관한 솔비치 진도는 그동안 체류형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전남 서남권에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것이다. 개관후 진도군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 수는 매일 2천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진도군에서는 솔비치 진도 개관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갖춰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준비해 왔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내표지판과 개신과 위험도로 등을 개선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관리와 진로도 향상을 위하여 군민 환경결연 운동의 전개와 음식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진도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진도만의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음식경연대회도 개최했다.

또한 관광객 편의시설 보강과 볼거리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진도 토요민속공연을 더욱 품격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진수성찬'이라는 새로운 공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도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밤에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도읍 오거리 페스

타'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에서 진도까지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행과 진도입구에 진도관광안내소 신설, 진도항에서 관매도까지 직항로 개설로 관매도에서 7시간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는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채워 나갈 것이다.

전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강강술래를 비롯한 3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남도 들노래, 진도 씻김굿, 진도다사대시 등 11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남중화의 뿌리이며 시(詩)·서(書)·화(畫)·창(唱)의 본고장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시대 삼별초 항몽 유적지와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 해전지, 최후의 동학혁명 현장, 세월호의 아픔 등 타 지역에 없는 호국자원 등이 산재해 있다. 진도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더욱 채워나갈 계획이다.

진도군의 투자유치를 통해 탄생된 전남 서남권의 명품 관광지인 솔비치 진도는 앞으로 진도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기고 진도군을 알리는데 효자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아이콘으로 개발 중인 진도항을 무역항으로 키워나가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社 說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해야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감정 완화는 눈에 띄일 정도로 확산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적 영역의 교류도 있고 민간영역의 교류도 적지 않다.

이 모든 교류가 소통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친밀도를 높이는 크나큰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교류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그 교류의 결정판이 대구와 광주를 단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철도건설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것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으니 기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가 최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주시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유지 기초지자체(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함평·고령)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음 달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대비한 사전협의 성격이다. 참석자들은 포럼 준비를 위한 지자체별 업무를 협의하고, 지난달 착수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운영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 최고시속 250km로 달리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 등 영호남이 1시간 이내 생활권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양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1천 300만명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돼 초광역 남북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은 절대 NO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우리 모두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을 모두 예상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더위를 위해 예방하여 피해가 없기를 당부한다. 이처럼 우리는 예방을 통해 폭염 속에 고된 업무를 마친 후에 가족 및 직장동료와 함께 더위를 날려버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를 찾기 위하여 퇴근 후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가벼운 음주는 고된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한 두잔 정도의 술은 혈액순환 및 잠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마시게 된다면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

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우리 국민 모두 과도한 보양식 섭취 및 과도한 음주는 삼가기를 바란다.

적당량의 음주를 섭취한 뒤 술에 취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는 행동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가 있기에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이다. 본인과 가족의 행복한 건강과 삶을 위하여 사소한 것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여름철, 차량내 아이 혼자 두지 말자

요즘에는 한집에 자동차 한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들도 흔하게 볼 수 세상이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은 인근 시장이나 할인점 등에 생활용품 구입하러 어린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잠깐 일을 보기위해 어린이를 자동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금상태로 방치했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거나 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대기의 기온도 높지만 자동차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간다. 더욱이 어린이는 피부

가 얇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정상체온보다 6°C만 높아도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표면체온이 60°C 이상이면 즉시 세포가 죽고 혈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안에서 어린이가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어린이를 차안에 두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안의 온도가 50°C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들이 순식간에 질식사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어 뇌손상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찬물로 열을 발산시켜 뇌와 조직의 손상을 막도록 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도록 하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